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건축물들을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파도를 헤가르는 듯배로 형상하였는데 정말 특색있다고, 강원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인민들이 큰일을 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받들어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 개실을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곳 소년단야영소만 놓고보아도 자식들에게 열가지, 백가지 아낌없이 주고싶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마다에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도서열람실, 전자도서열람실, 종합지식보급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새 세기 발전하는 교육학적요구와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야영기간이 그대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침실, 요리강의실, 식당의 조리실습실, 주방, 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방자재를 가지고 꾸렸는데 손색이 없다고, 아이들이 바다경치를 구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손으로 밥과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본 야영의 나날을 일생토록 추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정일에국주의교양실, 계급교양실, 전자오락실 등으로 이루어진 회관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모든 요소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리였다고 하시면서 문명한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야영소의 문화교양시설과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용도 체육관과 해수욕장에 꾸려진 샤워장, 넓고 시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고 모든 설비들과 인공지능까지도 강원도에서 자체로 생산한것이라는데 대단하다고, 야영

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수 있는것은 이땅우에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돌아보면서 자신께서 제일 만

족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낮익은 공장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공장의 로동계급이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00일전투목표를 지난 8월말까지 빛나게 완수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려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 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도록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고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는

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림으로써 공장에 주신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출작업반, 제화직장, 갑피직장, 도안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형태의 남자구두, 여자구두, 어린이구두를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신발종수가 늘어나고 신발모양이 더욱 세련된것이 알린다고, 정말 보기 좋고 호뭇하다고, 신발풍년이 들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투쟁한 결과 구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맵시있을뿐만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고 부러움것없이 잘살게 하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연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데 대한 문제, 모든 생산공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동화, 흐름선화하여 손로동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새로운 선진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신발형태도안을 시대적 및 민족적

미감에 맞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창작할데 대한 문제, 협동품을 비롯한 원료, 자재보장에서 당의 국산화방침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공장을 돌아보니 종업원들이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안팎을 정성껏 관리해가고있는 그들의 공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공장을 지나다가 예고없이 들렸는데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답게 만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진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거리와 함께 계신다

민족운명수호의 선군천만리길에서

오직 자위의 총대, 튼튼한 방위력에 국가와 인민의 안전도, 소중한 평화도 있다.

12월의 강산을 뒤흔든 인민군대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타격연습, 12월의 하늘가에 천둥소리를 내며 비행운을 새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은 무적강군, 불패강군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화력전지에 전개된 수백문의 대규격자행포들과 일제히 포문을 열고 적진을 삼시에 초도화한 포병들의 전투력에서 그리고 비호같은 전투조법으로 목표물을 단숨에 명중타격하는 비행지휘성원들의 비행술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민군대의 강군화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후뼀에 절감하게 되었다.

그날 포병들의 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진지를 차지하고있는 저 포무기들에는 인민군대의 포병무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고 하시었다.

포병들의 용맹한 모습에, 포무기 하나하나, 포탄 한발한발에 총대중시, 방위력강화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선군정치는 우리의 생명이다.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그이께서 한평생 견지하고 실천하시며 체득하신 군력이자 총대이고 총대이자 민족의 운명이고 자주권이며 존엄이라는 선군의 심오한 철리가 담겨져 있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그 어떤 침략세력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공화국이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가진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른것은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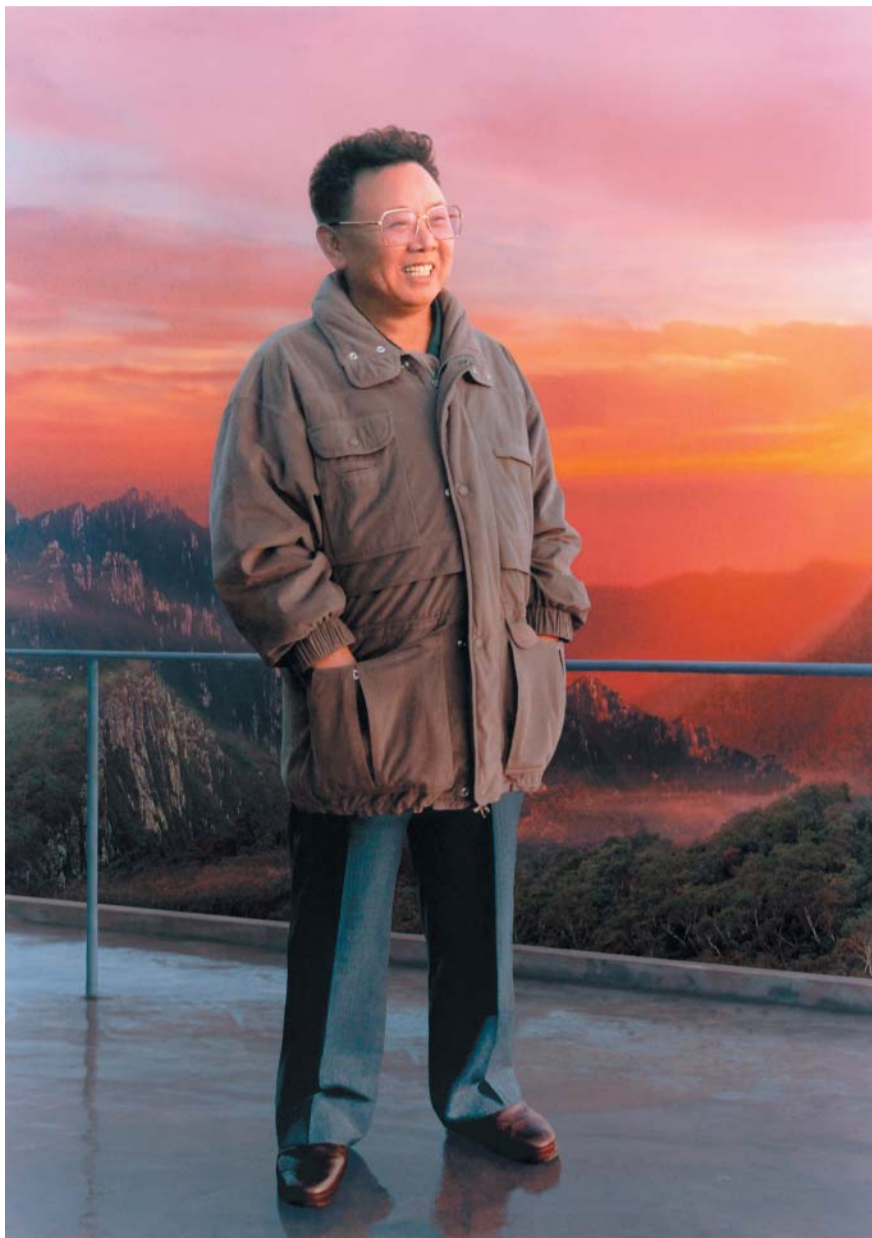
무릇 가문을 알면 영웅을 안다는 말이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 최대의 애국이 있고 총대를 홀시하면 나라도 잃고 일생 사탕구실을 못한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받으신 만경대일가의 가정철학이다.

일찌기 항일대전의 피어린 투쟁과 반미성전의 가렬한 싸움을 체험하시며 총대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끼신 장군님께서서는 총대를 영원한 길동무, 동지로 삼으시고 애국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 총대와 함께 혁명을 하시었다.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였지만 총대의 강약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에 그이께서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세력의 위협공갈에 투항한 《평화》제창자들이 《군비철폐》를 운운하며 검을 녹여 보습을 만들자고 떠들고 땅크나 비행기를 용광로에 넣는 영화도 만들어 내들릴 때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와의 타협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쉼을 얻을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검을 꺾을것이 아니라 검을 계속 틀어쥐어야 한다고 하시며 선군의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명도의 첫자욱을 남기신것은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금강산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계승하여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려는 투철한 신념의 분출이였다. 언제나 총대를 앞세우고 총대의 위력으로 백승의 활로를 열어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류레없이 엄혹한 시련이 겹쌓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의 기치 더 높이 드시고 조국수호의 최전방에서 서시어

라의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었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고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가림없이,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이어가신 장군님의 불철주야 헌신의 자욱이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높고 험준한 철령과 초도의 풍랑

길, 대덕산과 1211고지, 351고지와 관문점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에 새겨져있다.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비참한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족잡과 꿩기밥으로 휴식을 대신하고 끼니를 에우시며 정력적인 선군장정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신것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활한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시련에 찬 선군장정의 나날 그이께서 일으킨 단출한 잠바옷과 색바랜 수수한 단발솜옷의 오리오리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신 무한한 애국헌신의 세계가 그대로 숨배여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2490여개의 무력부문 단위를 시찰하신 그 자욱자욱,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신 때로부터 최전연부대들의 전방초소와 감시초소, 비행부대와 땅크부대, 해군부대 등 모든 군종, 병중부대, 구부대 등 선군명도의

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는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신것처럼 선군이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자주권이 담보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가 수호되게 되었다.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명도가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 열백번도 전쟁이 일어났을것이며 세계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 유고슬라비아 국부전쟁, 지역전쟁으로 겪은 전란과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재난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대전으로 번져 행성에서 무려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의 큰 도시의 파괴, 10억이상의 희생과 전지구의 사막화라는 무서운 4대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한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디아의 권위있는 정치학박사이며 명망있는 사회계인사인 비슈와나스는 세계적인 령장이신 김정일명도자께서 조선을 무한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시어 제3차 세계대전의 세계대열핵전쟁을 막으시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시었다고 격찬하였다. 김현환재미동포는 이북민중이 사랑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하다며 허리를 조이며 마련한 군사력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그 덕에 평화가 유지되어 이남민중이 덕을 보고있다고 하였으며 주영일재우즈베로부터 최전연부대들의 선군정치야말로 최고의 애국이고 고국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기둥이라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참으로 선군은 장군님의 평생의 정치리념, 정치방식이요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으며 그이의 세련된 령도따라 공화국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흰눈송이들이 강산에 소복단장을 하여주는 12월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온 나라에 뜨겁게 굶어초호르는 12월이다. 장군님의 고향군인 량강도 삼지연군에는 온 나라 군인들과 인민들의 총정의 마음에 받들려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동상이 최근에 정중히 모셔졌다.

얼마전 삼지연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의 동상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백두밀림에 거연히 서시어 삼천리강토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을 향도 해주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정말 잘형상하였다고, 야전솜옷을 입으시고 안경을 끼고계시는 모습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늘 뵈었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 나라 북변에 거연히 솟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자락에서 삼천리강토를 굶어보시는 선군명장의 모습.

력력한 백두밀림을 배경으로 옷자락을 날리시며 장군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은 정녕 갈라진 땅, 갈라진 강토가 아니다.

위대한 태양의 동상을 우려를수록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어 민족자주위업계획의 성스러운 사명감도 불태우시고 조선을 빛내이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

일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한 결연한 의지도 다지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온다. 언제인가 백두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태질을 하고 칼바람이 거세게 불어치는 산정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났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다시 일어나 싸우는 결결한 투쟁정신이라고, 앞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을 가로막을것이라 하고, 그러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온 겨레가 통일이란 얼마나 가슴벅찬 환희인지를 뜨겁게 절감하게 한 6.15통일시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에서 구상하시고 현실로 펼쳐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실 때마다 바라보신 곳.

바로 그곳은 백두에서 즐기내려 저 멀리 한나산까지 뻗어간 하나의 삼천리강토, 하나된 조국땅이였던것이다. 마음속에 통일된 조국강토를 안고사신 그이이시였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잘살겠다는 생각보다 조국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앞세워야 하며 모든것을 만났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다시 일어나 싸우는 결결한 투쟁정신이라고, 앞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을 가로막을것이라 하고, 그러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시는 원수님의 말씀에도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이어 이 땅위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결연한 의지가 맥동치고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삼천리강토우에 온 민족이 함께 모여사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헌신의

철탄로고를 바쳐가시며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가고계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 있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온 겨레가 얼싸안을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그 환희와 기쁨의 날을 그려보시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에 서시어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짓고계신다.

본사기자 리 경 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우고있다.



새기는 청년대학생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업적을 가슴깊이

오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류레없이 악랄한 대조선제재와 봉쇄압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 길로 굴함없이 나아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적대세력의 압살책동이 그칠새 없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의의 총대를 더욱 억척같이 버려 군력을 백방으로 다질 때만이 민족의 안전도, 평

화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다는것을 천명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고계신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국력은 군력이다. 군력이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부강번영의 넓은 앞길을 열수 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100여년전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음을 삼키며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군력이 약해서였다. 함선과 대포를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화승대박에 없던 조선은 항거도 못해보고 국권을 통채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늘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주권국가의 자위적권리를 탄압하게 침해하면서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압살해하려고 가장 비렬한짓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조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증해 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당한 망국노의 설움이 다시는 되풀이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미제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수호하시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을 천

백배로 강화하시였다.

올해에만도 그이께서는 첫 수소탄시험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트 《화성-10》시험발사,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며 핵무력을 질, 량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백두산악같은 신념과 의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은 최대열점지역인 장제도방어대와 갈리도전초기지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에도 새겨져있고 각 군중, 병종들의 화력타격훈련들에도 어려있다.

얼마전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되었다. 이 연습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가련한 제 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객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남전선수역 공화국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출망스러운 포사격질을 해댄 남조선역적패당에게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와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였고 최후의

경고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사격훈련을 보시면서 회한한 광경이라고, 대단하다고, 저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는가고,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조선것들을 저렇게 답새겨야 한다고, 첫 타격에 남조선것들의 대응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래도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칠놈, 비명지르는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영웅한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인민군대는 오늘 그 어떤 원수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진막강한 전투대로,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강위력한 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반미대결전과 강국건설위업에서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

벨릴릴리— TV로 방영되는 국제축구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선팀과 프랑스팀간의 결승경기가 끝나기 바쁘게 울리는 손전화기신호음, 전화를 받고보니 사람들속에서 《우리 력기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정숙(72살) 녀인이었다. 기자선생도 방금 TV를 보았는가,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얼마나 장한가, 자기도 력기선수후비들을 더 잘 도와주어 꼭 세계패권을 쥐게 하겠다는 흥분된 그의 목소리를 듣느라니 가슴이 뭉클했다. 여러 체육단의 여자력기선수들을 위해 적지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대동강반의 《우리 력기할머니》

전망성있는 선수후비를 찾아

《무슨 크게 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고싶어 하는거지요.》

년로보장을 받은 몸으로 나라의 력기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싶어 집에서 선수후비들을 뒤받침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기자에게 최정숙은 씩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이때 《할머니!》 하는 청높은 소리와 함께 한 소녀애가 책가방을 메고 방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녀는 기자를 보자 꾸벅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 나 늦었어요. 빨리 밥먹고 훈련하러 가야 해요.》하고 재촉했다. 《원, 우물에 가서 숯농 찾겠구나. 어서 밥을 먹어라.》 최정숙이 애정어린 어조로 꾸짖듯이 말하자 소녀애는 해죽이 웃더니 부엌으로 나갔다.

《손녀인게지요?》

그러자 최정숙은 웃으며 《우리 집에 와있는 력기선수후비인데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 다닌답니다. 나이는 어려도 전도가 양양하답니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자는 은근히 놀랐다. 돌사이가 얼마나 친근한지 친할머니와 손녀사이인줄로 알았던 것이다. 최정숙은 대견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애가 어찌나 별찬지 밤에는 내 몸우에 다리를 척 올려놓고 잔답니다.》 정이 푹푹 넘치는 그의 말을 듣느라니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지성을 바치셨으면 그처럼 따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어떻게 되어 전문가도 아닌 할머니가 력기선수후비선발

않은 훈련기재와 영양식품, 보약들을 지원하고 여러명의 선수후비들을 자기 집에서 뒤받침해주고있는 숨은 애국자,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듯이 애국의 마음은 비록 크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이다. 문득 취재차로 그의 집을 찾았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길을 달려온 그의 깨끗한 애국의 열정과 헌신성에 감동된 오순진감독은 선수후비육성과정에 쌓은 경험과 력기초기기술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력기에 대해 알게 될수록 최정숙은 자기가 하려고 나선 일이 욕망만으로 이루어질수 있는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허나 망설이지 않았다. 내 기어이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릴 세계적인 력기강자를 키워내는 데 한몫 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최정숙은 력기부문 일군들과 체육과학연구소, 체육단 력기감독들을 꾸준히 찾아다니며 과학적인 선수선발방법을 터득한데 기초하여 평양은 물론 먼 지방까지 다니며 력기선수후비선발을 돕기 시작했다.

그 나날 무슨 일일들 없었으랴. 어느해인가 황해남도 용진군에 재능있는 력기선수후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니 그 애가 사는 마을은 읍에서 60여리나 더 가야 했다. 조금 심정에 아침을 설치고 점심까지 건느며 마을에 도착한 최정숙은 아이의 부모에게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훈련복과 운동신까지 사가지고 평양에서 먼길을 달려온 그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물었다.

《할머니는 력기감독입니까?》

그러자 정숙은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애들이 여자력기감독인데 나도 력기에 대해 좀 알지요. 이 집 딸이 앞으로 틀림없이 세계적인 력기선수가 될테니 나한테 맡겨주시우.》

최정숙의 자신있는 말에 아이의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탁— 치며 《우리 아이가 성공할 재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그 열성이 고마와 내 딸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후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잘 도와주어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때 최정숙은 하늘을 통채로 얻은듯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스스로 맡아 평양에서 먼

길을 달려온 그의 깨끗한 애국의 열정과 헌신성에 감동된 오순진감독은 선수후비육성과정에 쌓은 경험과 력기초기기술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력기에 대해 알게 될수록 최정숙은 자기가 하려고 나선 일이 욕망만으로 이루어질수 있는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허나 망설이지 않았다. 내 기어이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릴 세계적인 력기강자를 키워내는 데 한몫 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최정숙은 력기부문 일군들과 체육과학연구소, 체육단 력기감독들을 꾸준히 찾아다니며 과학적인 선수선발방법을 터득한데 기초하여 평양은 물론 먼 지방까지 다니며 력기선수후비선발을 돕기 시작했다.

그 나날 무슨 일일들 없었으랴. 어느해인가 황해남도 용진군에 재능있는 력기선수후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니 그 애가 사는 마을은 읍에서 60여리나 더 가야 했다. 조금 심정에 아침을 설치고 점심까지 건느며 마을에 도착한 최정숙은 아이의 부모에게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훈련복과 운동신까지 사가지고 평양에서 먼길을 달려온 그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물었다.

《할머니는 력기감독입니까?》

그러자 정숙은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애들이 여자력기감독인데 나도 력기에 대해 좀 알지요. 이 집 딸이 앞으로 틀림없이 세계적인 력기선수가 될테니 나한테 맡겨주시우.》

최정숙의 자신있는 말에 아이의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탁— 치며 《우리 아이가 성공할 재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그 열성이 고마와 내 딸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후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잘 도와주어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때 최정숙은 하늘을 통채로 얻은듯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스스로 맡아 평양에서 먼

몇해전 최정숙이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를 보러 지방에 갔을 때였다. 그때 감기로 고열이 나고 온몸이 떨리었지만 그속에서도 녀변군청소년체육학교에서 온 한 소녀가 그의 눈에 들었다. 경기에서 우승은 하지 못했으나 12살 소녀치고는 유연성이 좋고 힘도 남달리 세었던 것이다. 그는 앓는 몸이라는것도 잊고 소녀의 지도교원을 찾아가 토론하고 집에 데려왔는데 후에 국가종합청소년팀에 선발되었다.

또 언젠가는 빠스를 타고 가다가 육체적조건이 남달리 좋은 소녀를 보자 도중에 내려 그의 부모들을 만나 딸이 기

《력기할머니》의 기쁨

최정숙은 집에 데려온 선수후비들을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 력기소조에 넣어 기초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일과표대로 생활하고 훈련하도록 하고있다.

아이들이 아침 6시에 기상하면 대동강안을 따라 달리기를 하고 철봉, 현수와 같은 육체운동을 한 다음 식사를 하고 학교로 보낸다. 공부를 마치면 청소년체육학교에 보내며 저녁시간에는 스스로 감독이 되어 아이들이 소조에서 배운 기술동작들을 완전히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어떤 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이 안라까와 자기가 력기간을 들고 끌기, 순간체기동작을 해보이다가 허리를 다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면 아픔보다도 아이들의 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만족감으로 기뻐한 최정숙이었다. 어떤 날은 밤늦도록 아이들에게 력기기술동작들을 설명해주다보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 옆방에서 자던 아들이 어머니, 이젠 자

다되는 력기선수후비감이라는 것, 다시 찾아올테니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선적도 있었다.

최정숙은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지의 청소년체육학교 력기소조 지도교원들에게 적성체질의 선수후비가 없는가, 있으면 함께 손잡고 잘 키워보자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명 또 한명 품들어 찾아낸 선수후비들모두가 전도유망한 여자력기선수들로 자랐다. 아시아력기강자로 이름을 날린 오정에선수도 최정숙이 금싸레기 고르듯 선발하여 밀거름이 되어 도와준 선수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력기할머니》의 기쁨

자요, 12시가 넘어어요! 하고 알려줄 때도 빈번했다.

어떻게하면 하루빨리 아이들을 훌륭한 력기선수로 키울수 있을가. 최정숙은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다.

그는 집벽에 《누가 제일 앞장설것인가》라고 쓴 기록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하루훈련정형을 자체로 기록하고 훈련일지에 적어놓도록 하였다. 그날 훈련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밤늦게라도 무조건 수행하고서야 잠자리에 들도록 하였다.

최정숙은 훈련에서는 엄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도 친할머니의 사랑과 정을 부여 아이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보아주고있다. 그의 집에는 각이한 크기의 비닐통이며 유리단지, 봉지들이 가득 놓여있는데 거기에는 《비타민》, 《꿀》, 《들깨엿》 등 갖가지 약제와 보약이름들이 써붙여있다. 지어 먹음직스러운 오리콕이 담긴 그릇들도 있다. 이 모든것들은 그가 선수후비들을 위해 마련한것들이다.

그렇게 품들여 뒤받침해준 선수후비들이 경기에서 1등을 하거나 중앙급체육단, 국가종합팀에 선발되어 가는 날이면 최정숙은 너무 기뻐 만시름을 잊고 환하게 웃곤 한다.

...

감동에 젖은 기자의 눈에 최정숙이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과 그가 받은 선물명세서, 수첩이 가득나는 지원증서들이 안겨왔다.

그는 결코 바치기만 한것이 아니었다. 바친것보다 더 크고 귀중한 인생의 영광을 받아안은것이다. 그런 그였기에 나라의 력기발전을 위해 자신을 갇그리 바치는데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있는것 아니라.

문득 전실에서 하루훈련을 마친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최정숙할머니의 기쁨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3kg이나 더 들어올렸단 말이야. 용타, 용해. 어서빨리 훌륭한 력기선수로서 자라 아버지원수님께 금메달로 기쁨드리는 체육인이 되자!》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홍범식



통일의 선봉투사가 되어야 한다

경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민족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민족대업의 앞장에는 마땅히 민족의 아들딸이고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서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었다.

예로부터 청춘이면 대산도 떠쉴고 대양도 말릴수 있다고 하였다.

새것에 민감하고 열정과 힘이 치솟는 청년시기의 중요함을 비껴 이르지말이다.

시대와 역사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그것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 왕성한 힘과 정의감을 지닌 청년들에 의해 국가의 전도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요하게 좌우되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다.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이 투쟁의 앞장에서 언제나 돌파

구를 열어제껴온것은 다름아닌 청년들이었다.

위대한 청년중시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지난 시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시기에도 공화국청년들은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넓은 앞길을 열어놓았다.

남조선청년학생들도 력대로 파쇼당국의 탄압과 교활한 기만술책에 굴하지 않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한 기개를 유감없이 떨치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4.19인민봉기에서 리승만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그 기세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높이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싸웠다. 북남사이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떠섰던 광주민봉기때에도 그 주역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1989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에도 자기의 대표를 참가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투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렇듯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

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선봉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청년들은 극악한 민족반역무리, 반통일무리인 박근혜역적패당을 매창하고 정의와 진리의 밝은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초불투쟁의 앞장에 서고있다.

《한대의 초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하지만 수백만이 추켜든 초불은 광풍이 불어도 끄떡없다.》, 《새로운 혁명, 청년운동으로 박근혜를 몰아내자》라고 웨치면서 매일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지어 고등학교학생들까지 떨쳐나서 초불시위, 동맹휴학, 항의농성 등 박근혜퇴진투쟁을 격렬히 벌리고 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악의 소굴인 박근혜 《정권》은 총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이 어언 70여년이나 지속되고있는 오늘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로 나서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시대는 청년들을 부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평화와 통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련대, 련합, 공동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날질 때 분렬의 오랜 장벽에도 파열기가 생기게 되며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리 어 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회의 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되었다.

총회에서는 해내외의 제 정당, 단체대표들과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뜨거운 열의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 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되었다.

총회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준비사업과 그 성사를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었다.

또한 북, 남, 해외실무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로 하며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올해중으로 내오기로 한데 따라 북측실무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하였다.

총회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주제105(2016)년 12월 8일 평 양

북남사이 협력재개를 요구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장로회가 5일 서울의 《정부》청사앞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통성장에서 평화통일기도를 가지고 북남사이의 협력재개를 요구하였다.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18년전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어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지금은 모든것이 중단되었다고 개탄하면서 《정부》

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과의 협력에 나섰다가 남북관계차단으로 고통받는 기업가들의 생존권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반 《정부》, 반파쇼민주화투쟁에 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

지금 이남에서 벌어지고있는 《박근혜하야》, 《박근혜퇴진》의 초불투쟁은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에도 참을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다.

일개 선무당에게 닳과 혼이 지배당한 박근혜로 하여 혼란된 남조선이 고국이나고 묻는 사람들에 뭐라 답할수 없는 창피감때문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매일 TV를 통하여 보이는 초불투쟁이 이전과는 달리 전민중적으로 벌어지고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감동적인것은 좌절감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개인적인 분노를 사회적연대감으로 폭발시켜 초불을 든 청년들의 모습이다.

아마 그들포대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모성특유의 관심심지도 모른다.

나의 딸자식도 저기 남조선 청년들중의 한사람이었다면 주운 낱씨에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초불을 들었으리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하야》를 웨치는 이남청년들의 초불을 보느라니 엇갈리는 불길이 보인다.

올해 8월 평양에서 타오르던 해불의 이글거림이다.

5월1일경기장을 짝 메운 해불, 세상이 보란듯이 가슴을 쭉 펴고 보무당맞이 행진해가는 청년들의 모습, 세상 부러울것없는 자부심과 행복감, 두려울것 없고 무서울것 없는 용감성과 담력이 한껏 어려있는 그 모습은 누가 강요해낼수도 없는것이였다.

그러한 궁지와 활력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해답을 이글거리는 해불로 청년들이 새겨가는 글밭들에서 찾아보았다.

청년강국, 청년전위, 척후

대, 익측부대, 후비대 ...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제도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또 들을수도 볼수도 없는 명언들로 새겨진 화폭이였다.

그 어디에서도 이북에서처럼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청년중시,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친 그런 나라, 그런 제도는 없었다.

오직 이북만이였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담기듯이 《청년들을 사랑하라!》, 《청년강국》이라는 부름만으로도 이북에서 청년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청년

치이다.

지어의 사회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영예로 여긴다.

20대의 꽃나이처녀가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품치는 물속에, 뜨거운 불속에 웃으며 뛰어드는 이북청년들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종뉴스로 될 이러한 놀라운 현실들이 이북사회에서는 너무나 범상한 일로 되고있다.

아마도 청년들에 대한 이북사회의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이북청년들을 이처럼 훌륭한 인간으로 완성시키는 자양분인것 같다.

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이 청년들에 의해 불이 타오르고 평양의 밤하늘을 이채롭게 하였다.

청춘은 한마디로 불이다.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밝음이고 열정과 투쟁을 상징하는 열이다.

이북에서는 평양의 하늘만이 아닌 청년들이 가있는 곳 그 어디서나 해불이 타오르고 우등불이 타오른다.

TV를 통해 세상이 본것처럼 함북도 북부피해북부전역에서도 청년들의 불이 타올랐다.

나는 그 불을 단순한 피해복구를 위한 로동의 불로만 보지 않는다.

청년중시의 정치를 펼친 고마운 제도에 대한 보답의 불이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려는 의지의 불, 언제나 승자가 되려는 이북청년들의 심장의 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청년들을 가진 나라, 제도의 미래는 타오르는 불길

과 같이 밝고 창창하다.

눈길을 다시 돌려 남쪽을 본다.

한강도, 한겨레이건만 이남 청년들이 든 초불의 의미는 다르다.

그 불길에 먼저 비껴보이는 것은 울분과 분노이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리화녀대의 시국선언에서 청년들은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라며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보라빛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가 선무당의 딸만을 위한 《특혜》로 남조선청소년들의 배움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

등이 휘여지게 일해 한푼두푼 학비를 마련할 때도, 자기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험해 지는 얼굴을 거울로 비쳐보며 《나도 청년이다.》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대도 혹시나 노력하면 될거라는 일루의 희망이 이남청년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특혜로 높고 먹으면서도 대학에 붙은 정유라와 같은 1%의 특권층은 이런 청년들의 희망마저 가혹하게 짓밟아버렸다.

특권이 있는데야 이남청년들이 뼈를 깎아 노력한들 어떻게 빛이 나겠는가.

그들이 빼앗긴것은 배움의 희망만이 아니였다.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생활, 이 소박한 소원마저 이 남사회에서는 실현될수가 없었다.

《청년고용의무화》는 《중동으로 가라.》는 말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청년실신사태》에

치어 《삼포세대》, 《5포세대》, 《N포세대》로 몰락당하고 《헬조선》, 《탈조선》, 《똥수저》를 원망하며 자살의 길에 내몰리었다.

박근혜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기대를 가지고 가슴속에 꿈과 희망의 불을 켜고 살았던 남조선청년들이 받은 절망은 너무도 큰 것이였다.

노력을 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이룰수 없는것은,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이 실현될수 없는것은 다름아닌 반민중적정치, 반민중적사회구조의 필연적결과였다.

청년들에게 가져다준것은

만들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었을때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고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나왔다고 은근히 기뻐했던 나 자신이 격분스럽고 부끄럽다.

은 이남땅이 불바다가 되어 메마른 이 사회를 중요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개, 돼지》라는 말, 《돈도 실력, 네 부모를 탓》하라는 말에 이남청년들은 항거의 초불을 들었다.

철면피한 박근혜패당은 투쟁의 초불을 두고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야유하였다.

그러나 초불은 꺼진것이 아니라 박근혜퇴진바람을 타고 100만, 200만의 초불로 확산되어 타올랐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되돌리기 위해 초불을 들고 행진을 시작한다.》, 《청년들은 경찰이 막는다고 해도 맨몸으로 청와대로 진격할것》,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끌어내릴것》

남조선청년들의 의지가 남녘의 어둠을 밝히는 해불이 되고 온갖 부패하고 악취나는것들을 불태우고 진실로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밝히기 위해 들불로 타오르고있는 것이다.

이남전역에서 지핀 청년들의 초불은 사기와 협잡, 모략과 권모술수, 시기와 질투, 반역기질을 총발동하여 우롱한 박근혜를 화형할것이 틀림없다.

북과 남에 타오른 불.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이북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만드는 보답의 해불이, 사랑과 정의가 메마른 이남땅에서는 그것을 되찾기 위한 청년들의 항거의 초불이 타올라 삼천리를 밝히고있다.

재카나다동포 황진의

보답의 해불, 항거의 초불

대결광신자들의 말로는 비참하디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수백만명의 인민들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매일과 같이 초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순실과 같은 선무당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리용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북남관계를 완전과국상태에 몰아넣은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나온 한해에만도 박근혜패당이 북남관계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실현에 저지른 최악은 일일이 려거하기조차 힘들다.

보수패당은 올해 초 공화국이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 단행한 첫 수 소란시습을 《도발》이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상전과 함께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갔다. 남조선당국은 유엔무대에서 그 무슨 《제재결의》 조 작에 앞장서 달려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심리

전방송을 재개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역 도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위성발사를 구실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고 6.15의 유동자인 개성공업지구로 전면중단 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에 와서 밝혀진 문제이지만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마저 끊어놓은 이 범죄행위도 최순실의 지휘조종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결국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한 박근혜 문에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120여개의 남조선기업과 6 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거기에 종사하던 수만명에 달하는 남조선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지난 4월에는 공화국의 해외식

당종업원들을 유괴랍치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이 그 무슨 《유엔대북제재결의》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니, 공화국근로자들의 《남조선사회에 대한 동경》이니 뭐니를 떠들어댔지만 이 사건이 정보원 강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랍치 범죄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보수패당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자식을 생리별시키는 중범죄를 감행하고도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만나겠다는 부모들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폐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엄중하였지만 공화국은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것으로 의지로부터 남조선당국에 선의와 아량을 보이고 민

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었다. 지난 6월에는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련석회의를 열고 전체인민들에게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공동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한해를 맞으며 전면적인 통일대회를 개최할데 대한 제안도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이 아량과 성의에 칼질을 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보수패당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

외의 단체들이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남측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공동행사를 파란시키는 반통일당풍을 부리었다. 또 공화국의 련석회의개최제안을 《위장 평화공세》라느니, 《북핵포기가 최우선》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과 남, 해외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측성원들을 탄압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보수패당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해방 일흔한해를 맞으며 열리기로 되어있던 통일대회합이 끝내 열리지 못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은 이른바 《북인권법》 채택소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박근혜패당은 집권 첫날부터 미국상전과 함께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까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여다 못해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동안이나 처박혀있던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지난 3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9월부터 정식시행하는 놀림을 벌리었다. 제 집안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있지도 않는 《북인권》을 한사코

제발 사실들은 통일의

제반 사실들은 통일의

제반 사실들은 통일의

삼적존재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실현의 결정적 장애물인 박근혜와 같은 보수패거리들이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우리 민족의 머리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구름만 밀려오고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불신만이 더해진다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이 2년안에 붕괴》 된다는 선무당의 점괘에 빠져 집권기간 동족대결과 군사적도발소동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린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실현에 갖은 장애만을 조성해온 박근혜역도의 최악은 절대로 용서 받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 재난을 들씌우려고 외세와 손잡고 갖은 범죄적망동을 부린 박근혜역도가 지금 분노의 탄핵초불에 휘말려 타락계 된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은 악녀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지향을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매달려야 그것은 종당에는 자기 파멸의 함정에 빠진다는것을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이 잘 말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친미사대매국노, 대결미치광이무리인 박근혜패당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오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강남아줌마》에게 닉과 혼을 다 빼앗기고 《국정》을 통략한 현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키려는 수백만 민중의 초불시위 투쟁앞에 서리맞은 호박 일신세가 되어 파멸의 운명만을 기다리고있던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이 최근 고개를 다시 쳐들고 미쳐달뛰어 민심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새누리당》내 친박계는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탄핵하는것은 레가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고아대며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난하는가 하면 《4월퇴진, 6월조기대선》이라는 기만적인 각본을 내들고 남조선 각계층의 《즉각 퇴진》요구를 무마시켜보려고 꾀하고있다.

지어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박근혜의 여러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 분노한 각계층의 초불시위, 《불복종투쟁》이 더욱 확대조직되자 《(종북) 세력이 집회를 움직이고있다.》,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면 보수가치도 끝장난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보수지지층의 재구합을 이룩하고 민심의 퇴진요구를 눌러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어버이련합》, 《한국자유총련맹》,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만한 (대통령)을

내놓으라.》라고 송장을 앞에 놓고 울부짖는 까마귀처럼 떠돌며 련일 뒤돌목에서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를 벌여놓고 란동을 부리고있다.

한편 박근혜퇴진을 떠들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극우보수언론들도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야 선언이나 같다고 할수 있

다.》, 《탄핵은 가급적으

로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비호두둔으로 여론을 몰아가고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청와대경호실장,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과 같은 박근혜의 노복들은 물론 특대형추문사건의 기본증거자체인 최순실과 그 족속들,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까지 《국회 국정조사》에 나설데 대한 요구에 《신병》과 같은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뺨 쳐대고있는판이다.

이것이 11월 29일에 있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는 다음 제기된 문제라고 할 때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

실맞은 독사는 다시 소생하고 더 독을 쓴다고 한마디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얼마전에 있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세력을 결집하여 어 떻게 하나 형세를 역전시켜보려 꾀하고있는것이다.

독사가 파리를 푸는것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서이다.

사실상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이 목을 움츠리고 있는것은 사태가 상상밖으로 심각하고 각계층의 분노가 너무도 분출하였기 때문이었지 결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도 아니고 기가 죽어서도 아니었다.

한동안 속을 끓이며 먹이감을 앞에 둔 늑대처럼 이제나저제나 판세를 뒤집고 역습할 기회만 노리는것이 보수패당이다.

독사는 백번 죽어 다시 살아나도 독사가 되는것처럼 보수 역시 백번 죽었다나도 역시 보수이다.

부패무능한 보수집권세력들이 지금은 민심의 저주와 분노의 초불에 기가 눌리워 움츠러있지만 다시 되살아나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 경우 그 후과는 매우 심각하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매일과 같이 벌려온 지금까지의 투쟁의 결과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끔찍

한 보복전이 벌어지리라는것은 명백하다.

4.19인민봉기로 얻은 귀중한 민주화의 열매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지고 《유신》독재를 무너트린 부산, 마산민주항쟁의 열매가 12.12속군쿠데타를 통한 신군부세력들에게 통째로 빼앗긴 사실, 1987년 6월인민항쟁의 열매가 인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기만적인 《6.29선언》에 의해 다시

친미보수독재 《정권》이 조작된것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에게 많은 각성을 주고있다.

입에 칼을 물고 기회만 엿보는 보수세력들에게 숭틀 뜰을 주어 그들이 되살아 독을 쓰면 그 대가는 퍼로 치르어야 한다.

하기에 초불을 추켜든 남조선인민들은 악취풍기는 친미보수 《정권》이 다시는 솟아나지 않도록 이 항쟁을 끝까지 계속해나갈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민심에 너전하길 판역무리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통치위기에 벗어난보려는 박근혜일당의 단발마적발악이 위험천만한 전쟁도박으로 번져지고있다. 지금 박근혜일당은 저들의 반역통치가 빚어낸 남조선의 정국혼란을 뚱뚱이같이 《복잡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묘사하며 군부호전광들을 내몰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는 공보실장을 내세워 《북이 국제정세와 미국정권교체를 계기로 도발》할수 있다느니, 《도발시 강력응징할것》이니 하며 동족에 대해 사나운 이발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군과 《대잠수함전 위크그룹회의》라는것을 벌려놓는가 하면 《버질린트 에이스》 공군련합훈련을 강행하면서 북침전쟁광기를 부리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

의 박근혜심판열기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속에 날로 포괄화되는 군부호전광들의 움직임은 결코 레사롭게 볼것이 아니다.

남조선군부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더한층 격화시켜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보보장리사회를 통해 전례없이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벌림으로써 공화국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고 북침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련일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며 전쟁불장난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

며 정세를 전쟁발발구면으로 끌고가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이렇게 해서 남조선의 초불민심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고 파멸의 함정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물에 빠진 자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궁지에 몰린 역적패당이 마지막발악으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어제는 그 누구에 대한 《응징》과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매달리고 오늘은 다 죽어가면서도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하수인으로 나서고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 보수당국이다.

그러나 케케묵은 《안보위기》, 《안보불안》 조성냄음으로도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다. 반공화국도발, 북침전쟁도발냄음은 살길이 아니라 파멸을 더욱 재촉하는 길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갈가리 찢기는 《새누리당》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참가자들이 집행자의 구령에 맞춰 두손으로 《새누리당》의 기발을 갈가리 찢어버리는것으로써 자기들의 분노를 표시했다.

인민들을 기만한 박근혜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더해주며 사람들은 《새누리당》 기발을 순식간에 찢박 찢어 밟아버리었다.

거세찬 초불바다에 휘말려든 부나비신세가 된 오늘에조차 안전한 은퇴를 꿈꾸는 박근혜와 위기를 벗어나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갈가리 죽랑치는 심정으로...

처참하게 찢겨지는 《새누리당》 기발, 그것은 지리멸렬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기도 하다.

너도나도 손을 내밀어

사정없이 기발을 찢어대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이상 정치사환군들을 용서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성난 몸부림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아버릴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표시인양 갈가리 찢긴 《새누리당》 기발은 형체조차 없다.

본사기자 류현철



불 의 를 용 납 치 않 는 정 의 의 힘

민심은 천심이다. 하기에 예로부터 재물을 잃은것은 작은것을 잃은것이고 벼를 잃은것은 큰것을 잃은것이며 민심을 잃은것은 인생의 모든것을 잃은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박근혜가 민심을 잃고 인민이 추켜든 초불의 힘앞에 마지막숨을 튕고있다. 남조선에서 매일 벌어지고있는 초불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열마전의 6차초불시위에

무려 230여만명의 남너로소가 거리에 떨쳐나섰다. 이것은 여직껏 남조선땅에 있어본적이 없는 최대 규모의 항거, 거대한 《시민혁명》의 분출이다. 회세의 꼭두각시이며 마녀인 박근혜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를 겹겹이에위싼 초불의 바다는 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것인가를 다시금 역사의 진리로 생동히 새겨주고있다.

너는 청와대의 풀방에 미용사를 끌어들여 거의 2시간이나 태연하게 자기의 《울림머리》를 하고있었다. 더 곱게 해달라, 거울을 치켜보며 여기는 요렇게 해달라, 저기는 이렇게 해달라며 입가에 해사한 미소를 띠울 때 차디찬 바다밑에서는 아이들이 손톱으로 선체를 긁다가 힘이 지해, 숨이 점점 막혀 하나둘 죽어가고있었다.

피담을 짜내왔는가를 날날이 드러낸것으로서 악정의 최절정이었다. 이것은 지금껏 참고참아왔던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였다. 온 남녘이 순식간에 초불의 바다가 되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살게만 굴던 《정권》의 검은 실체가 날날이 드러나게 되면서 분노는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분노가 쌓이게 되면 언제 인가는 무섭게 터지고만

다는것을 남조선의 초불의 대하는 말해주고있다.

불 의 를 용 납 치 않 는 다

인민은 거짓을 모르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 거짓과 불의, 이것은 인민이 가장 혐오하는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절대로 용납치 않는것도 인민의 기질이고 의지이다. 인류력사가 무수한 폭절을 겪으면서도 낮은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창조하며 오늘에 이룰수 있는것도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이런 인민의 의지와 줄기찬 노력에 의한것이었다.

오히려 역도에 대한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 달리는 처신할수 없는 역도년을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어 지옥에 보내야 한다는 인민의 일념을 더욱 불태워주고있다. 초불은 50만, 100만, 백수십만, 230여만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라올랐다. 분노의 함성은 더욱 높아지고 초불의 강도는 한겨울에서 추위로 녹일만큼 몇배로 더욱 뜨거워졌다.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앞을 내다보며 《담담하게 걸어 가겠다.》는 역도의 개나

민심은 분노한다

오래전 어느 한 나라의 철학자는 최고통치자는 백성에게 《비와 햇빛을 준다.》고 하였다. 인민이 바라고 원하는것을 준다는 뜻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부터 오늘까지 박근혜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준것은 무엇이었던가.

민불행시대》를 만들어놓았다. 박근혜집권시기에 남조선인민들의 삶은 최대로 비참해졌다.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삶을 비판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남조선은 《헬조선》으로 되었다. 다 망한 《망한민국》이 되었다. 이 더럽고 참혹한 지옥에서 살지 않겠다고 비행기에, 배에 몸을 싣고 떠났고있다. 남조선에서 명목상 통치자로 되어있는 박근혜의 눈에는 인민이 애당초 없었다. 지금껏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떠밀어온 인민이 박근혜의 눈에는 개, 돼지로밖에 안보였다. 그래서 《세월》 호가 가라앉고 배와 함께 수장된 수백명의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바다밑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 악

박근혜의 정치는 이렇게 저 하나만을 위한 《정치》였다. 인민을 죽이는 악정이었다. 그 악귀의 물대포에 맞아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던 백남기농민이 목숨을 잃고 《싸드》배치강행으로 남조선은 외세의 핵전쟁터로 더욱 화하였으며 북남관계를 파괴하다못해 개성공업지구의 숨통까지 끊어놓아 남조선의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수천수만의 가족들이 생계수단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였다. 하물며 사회적존재인 인간이야 더 말할해 무엇하겠는가. 인민들은 결코 밟혀도 가만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살기를 띤 독재자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하여 계속 앉아 죽기만 기다릴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인민에게는 분노라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지심에서 이글거리는 용암과도 같은것이어서 여느때는 잘 보이지 않아도 일단 분화구를 터치면 무서운 화산이 된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눈에 비쳐진 박근혜 《정권》의 최악은 사상 류례가 없는 최대의 만교피악이고 도저히 용서 못할 특등죄악으로 되고있다.

인민은 세상을 바꾼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폭발하여 독재의 아성을 처참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다. 그 힘은 비단 박근혜만을 겨냥한것이 아니다. 독재 《정권》과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고 비호한 해운 《국정》룡당의 공범 《새누리당》에게도 향해져있고 권력의 치부를 저들의 치부와 맞바꾸며 인민의 고통을 짜내온 독재체제들을 징벌하는데로 향하고있다.

박근혜의 《대선공약》을 다시 펼쳐본다. 《국민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드리고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대통령의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은 더욱 올라가고 대학졸업증은 곧 실업증으로 되어 청년들은 모든것을 포기하고 더는 포기할것이 없는 《N포세대》로 전락하였으며 로인들, 녀성들, 아이들도 살기 힘들다며 돈만 아는 세상을 저주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어둠을 밝히는 불의 대하는 민심 업중으로 되어 청년들은 모든것을 포기하고 더는 포기할것이 없는 《N포세대》로 전락하였으며 로인들, 녀성들, 아이들도 살기 힘들다며 돈만 아는 세상을 저주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어둠을 밝히는 불의 대하는 민심 업중으로 되어 청년들은 모든것을 포기하고 더는 포기할것이 없는 《N포세대》로 전락하였으며 로인들, 녀성들, 아이들도 살기 힘들다며 돈만 아는 세상을 저주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거짓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련이어 람발하며 인민들을 조롱하고 민심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자기는 잘못한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나쁘다고 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나쁜것이라고 그의 《담화》는 인민을 비웃고있다. 이런 낮가죽 두꺼운 변명, 자기합리화가 도 있을수 없고 초불민심에 대한 이보다 더한 우롱, 모독이 있을수 없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폭발하여 독재의 아성을 처참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다. 그 힘은 비단 박근혜만을 겨냥한것이 아니다. 독재 《정권》과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고 비호한 해운 《국정》룡당의 공범 《새누리당》에게도 향해져있고 권력의 치부를 저들의 치부와 맞바꾸며 인민의 고통을 짜내온 독재체제들을 징벌하는데로 향하고있다.

지난 수년간 박근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는가.

남조선에서 명목상 통치자로 되어있는 박근혜의 눈에는 개, 돼지로밖에 안보였다. 그래서 《세월》 호가 가라앉고 배와 함께 수장된 수백명의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바다밑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 악

남조선에서 명목상 통치자로 되어있는 박근혜의 눈에는 개, 돼지로밖에 안보였다. 그래서 《세월》 호가 가라앉고 배와 함께 수장된 수백명의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바다밑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 악

그는 뒤집혀진 쪽배에 탄 신세이면서도 아직도 인민을 우롱하고 정면도 전해나서고있다. 역시 악녀는 악녀이다.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들기도 눈집 하나 까딱 안한 악귀의 본성은 지금에 와서 달라질수도 없는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스레 늘어놓는다고 하여 인민의 밝은 눈을 속일수는 없다. 퇴진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뻔칠 내기를 한다고 하여 분노가 가라앉는것도 아니다. 미꾸라지를 찢어먹을 정도로 탄핵, 퇴진의 울가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요리조리 말바꾸기술책으로 기만을 하려고 하지만 결코 민심은 박근혜가 바라는데로 흐르지 않았다. 그것은

인민은 력사의 주체이다. 인민의 그 힘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남조선은 인민이 벌리는 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인민들은 청와대도, 《국회》도 에워싸고 인민이 진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참다운 세상을 안아오겠다며 투쟁열의와 의지를 드러내고있다. 한겨울의 추위는 기승을 부려도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려는 인민의 기세는 하늘땅에 충천하고 초불은 해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 온 남녘땅에 더 활활 타고르고있다.



지금 국제사회의 이목을 모으고있는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의 붕괴사태는 의미하는바가 적지 않다.

2012년 박근혜가 집권하면서부터는 시대와 민의를 거슬러 악취나는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는 놀음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박근혜정치》의 1차 목적은 《유신》시대부활이었다. 그리고 친일파, 파쇼폭군으로 역사에 락인적인 애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2012년 박근혜가 집권하면서부터는 시대와 민의를 거슬러 악취나는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는 놀음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박근혜정치》의 1차 목적은 《유신》시대부활이었다. 그리고 친일파, 파쇼폭군으로 역사에 락인적인 애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단적인 실례이다. 박근혜의 애비미화놀음은 도수를 넘어 온 남녘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력사교과서 《국정화》도 강행하였으며 얼마전에는 래년도에 서울 한복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놀음까지 벌려 만인의 분노를

1970년대 증엄에 박정희는 최태민과 박근혜의 치정파 부패로 얼룩진 관계에 대하여 날날이 알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두둔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최태민은 수십가지의 큼직한 부패사 회동상을 세우려는 놀음까지 벌려 만인의 분노를

권력은 집권자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민심이 말바꾸기술책으로 기만을 하려고 하지만 결코 민심은 박근혜가 바라는데로 흐르지 않았다. 그것은

사 1000여명의 통절한 반성문까지 언론에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새롭게 눈을 뜨고있는 오늘

지금껏 남조선을 구렁이처럼 청청 감으며 어둠과 절망에 몰아온 《유신》의 최악은 날날이 드러나고 그 매국가문은 민중의 저주속에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있다.

남조선에 어둠의 장막을 수십년간 드리운 반역집안의 몰락, 이는 력사의 필연이고 사회정의와 진보, 발전을 원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비록 늦은감은 있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신》의 악몽이 다시는 남조선인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을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열매이다.

어둠의 장막을 길게 드리운 역적집안의 몰락

박정희, 이 《유신》 독재자의 출현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악몽이고 재난이었다.

《유신》 독재시기에 형성되고 뿌리를 내려온것이다. 박정희는 그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조작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은 부마항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심복졸개의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더러운 신세가 되었다.

박정희는 그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조작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은 부마항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심복졸개의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더러운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박근혜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주범으로 그 최상이 만천하에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무대에 등장한지 18년만에 애비와 같은 비참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온 남녘을 격분시키고 온 세계의 조롱거리로 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뿌리는 《유신》 독재시기에 거슬러 올라가 박근혜의 애비인 박정희와도 련결되어있다.

않고 온갖 부화방탕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박근혜를 조종해왔다. 후에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무대에 등장한지 18년만에 애비와 같은 비참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온 남녘을 격분시키고 온 세계의 조롱거리로 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뿌리는 《유신》 독재시기에 거슬러 올라가 박근혜의 애비인 박정희와도 련결되어있다.

받침대에는 《철거하라》는 문구까지 새겨졌다. 남조선인민들의 거의 100%가 박근혜퇴진을 부르짖는 속에 력대적으로 보수세력의 정치적지반으로 되어온 대구에서도 압도적다수가 역도에게 등을 돌리었다. 얼마전에는 《〈한국〉도 부끄럽고 대구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다.》며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보수추물에게 표를 찍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대구시 각계인

본사기자 서명수

지난 6일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난 박근혜는 현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자기의 《립장표명》이라는것을 하였다.

뭔가 하고 지켜보았더니 역시나였다. 쥐여짜면 탄핵할테면 하라. 난 내 길을 끝까지 간다는것이였다.

두주먹이 불끈 쥐여졌다.

초불민심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박근혜는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룰리도덕도 없고 지켜야 할 본분도 다 잃었다.

이 추운 겨울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 《박근혜 즉각 퇴진》을 부르짖고있는가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있는것 같다.

학업에 전심전력해야 할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광장의 마이크를 잡는가 하면 철없는 애들까지도 얼어붙은 아스팔트위에 퍼터버리고앉아 《박근혜 싫어요》라는 구호판을 들었다. 100살 난 할머니까지 《박근혜 퇴진하라》를 외우며 거리 한복판에 힘들게 서있었다. 이제는 민중의 초불이 해불이 되어 타올라 온갖 죄악으로 이그러진 악마를 불태워가고있다.

우리 해외교포들까지 이역땅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부르짖으며 련일 시위투쟁을 벌리고 있고 오늘일가, 래일일가 하고 박근혜퇴진소식만을 기다리고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남국민들과 똑같이 《박근혜 즉각 퇴진》에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남녘의 민중과 우리 민족앞에 지은 박근혜의 죄가 천가지, 만가

지 끝이 없고 그 크기에 있어서 세인을 깜짝 놀래우고 세계를 전복케 하고있기때문이다.

하긴만 대답은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는 왕청같은 대답뿐이다. 박근혜는 지난 3차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결정에 모든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담히》 가졌더니 얼마나 뻔뻔스러운것인가. 제가 온 국민을 상대로한 《약속》도 며칠만에 헌신짝처럼 쥘버리는 이런 박근혜의 말을 믿을게 하나도 없다.

제가 지은 엄청난 죄악은 모두 당반우에 올려놓고 탄핵초불이 바다를 이룬 지금 이 시각에조차 털끝만 한 반성도, 죄의식도 없이 제 갈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박근혜야말로 《대통령》은 고사하고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수치의 대명사라 하지 않을수 없다.

얼마전 이남의 한 일간망등이가 《(대통령)이 부디 제발로 내려오겠다는데 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려 하는가.》라며 민심의 탄핵요구를 비난해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탄핵을 해도 권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악녀를 이제는 민중이 머리카락을 잡아서라도 내동댕이쳐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 본다.

재가나다동포 김미래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한다.

2014년 4월 16일, 300여명의 꽃망울같은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이 바다속에 수장된 그날을... 한초한초, 한시간한시간 얼마나 역장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었던가.

무정한 바다를 바라보며, 매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타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아버지, 어머니들,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태웠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박근혜가 아이들에 대한 구조대책을 세울 대신 강남의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이나 허비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여 만인을 또다시 경악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한겨레》는 《미용사 정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올림머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하기 시작한 오후 1시는 해경이 《세월》호에 갇힌 315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중수색작업에 착수한 시각과 일치한다.》며 《이른바 황금시간과중에 90분을 허비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이 보도가 나가자 남조선도처에서는 민심의 분노가 더욱 치솟아올랐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사람

이 물에 빠지면 제 혈육이 아니라도 물에 뛰어들어 건져주는 것이 인간본연의 심정이다. 하물며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바다에 빠져 생명이 한초한초 꺼져가고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는 청와대에 앉아 그걸 보고보고서도 거의 2시간이나 머리단장을 하고있었다니 이게 사람인가. 인두걸을 쓴 악마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행동할수 없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바빠맞은 박근혜는 청와대의 《내시》들을 동원해 《미용한 시간이 20분》밖에 안된다느니 뭐니 하며 갖은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고있다. 그러나 제가 얼마전 한 말도 방금 뒤집는 박근혜가 흘리는 그런 궤변을 끝이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알려진데 의하면 박근혜의 머리모양은 총란에 비명횡사한 제에미의 머리를 모방한것으로서 최순실의 조언을 따른것이라고 한다.

이 복잡한 《올림머리》는 수십개의 빗집을 꽂아 모양을 내야 하므로 청와대안팎에선 오

래전부터 《대통령》이 머리하는데만 2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돌았었다. 그러니 《세월》호 침몰당일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쯤 시간이 걸렸다는 해당 미용사의 실토와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머리를 손질해준 전용미용사의 남편은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 인천지역의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박근혜의 머리손질보도에

《세월》호유가족들은 《오래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애써왔는데 정작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니가 눈물만 흐른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오면서서 그래도 뭔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있었기를 바랐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대통령》으로서 일개 무당에게 《국정》을 내맡긴 사실만으로도 용납이 안되는데 수백명 아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던 시각에 2시간동안이나 머리미용하는데 정신이 쏙 빠져있을 박근혜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마귀임이 분명하다.

아니, 그 아무리 흉악한 마귀

라 할지라도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아이들이 숨져가는 그 순간에는 속이 떨렸을것이다.

90분, 《세월》호유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도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었지만 박근혜에게는 너무도 짧은 안락의 시간에 불과하였다.

박근혜는 그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자기의 머리카락 한오리만큼도 여기지 않았던것이다.

물속에서 구원의 손길만을 기다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숨도 제대로 안나가게 인위상정일진대 그 시각에 90분이나 머리손질을 한 박근혜.

한 야당인사는 《수백명아이들이 침몰하는 배안에서 죽어가는걸 보고받아 이미 알면서도 늦장에 심지어 머리를 올리느라 90분,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서 는 순간 체포하여 구치소로 보내고 모든 죄상을 엄히 밝혀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후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박근혜는 90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90년, 아니 900년동안 감옥에 갇혀 《세월》호참사로 숨진 소중한 목숨들과 수많은 사람들앞에 속죄해야 한다는것이 남녘민심의 징벌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살인자의 90분



끝까지 제 길을 가겠다는 악녀

시뚤음 면 치 못 하 리 비 참 한 파 멸 을 !

청와대 앞 100m !

김 송 립

분노한 민심의 초불바다 분노의 격랑을 일으킨다 《박근혜퇴진!》 목청껏 퍼치며 온 남녘이 노도쳐 간 곳은 청와대앞 100m계선!

그 언제 있었던가 청와대의 바로 코앞에 격노의 불길이 타오른적이 얼마나 중오가 사무쳤으면 온 남녘이 산악같이 떨쳐나섰 으랴

《이게 나라냐?》 분개한 함성이 터져나오는 광장을 보라 정치인도 노동자도 농민도 있다 100살의 할머니도 애 어린 학생 들도 손에손에 초불을 높이 들었다 박근혜의 숨통을 거머쥐려는듯

청와대앞 100m까지 내달려간 남녘의 민중 1m 1m 그 길이 조여질 때 가차없이 조여지지 않았던가 죽음의 울가미 징벌의 울가미는

들리느냐 캄캄한 야공을 뒤흔드는 분노의 함성 보이느냐 수백만이 추켜든 저 초불의 바다 《명예로운 퇴진》을 바라지 말라 이제 박근혜 네가 할일 있다면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받는것

청와대앞 100m까지 내달린 항거의 대하 그 어떤 우롱도 기만도 변명도 더는 분노의 격랑 막지 못한다 오, 박근혜 너에겐 더는 없다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민중의 분노를 끓이는 중오의 불 유해를 안장한 무덤인듯 파괴한 정적에 묻힌 청와대 숨이 죽은 암흑의 소굴 태워버릴 불은 하늘에 치솟는다

《새누리당》은 죽었다!

김 태 룡

서울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선 처참한 《죽음》이 일어났다 박근혜치마자락에 밧알처럼 붙어 돌아가던 《새누리당》이 갈기갈기 찢겨 졌다

격노한 민중이 두손의 힘을 모아 찢어발긴 《새누리당》기발 가차없이 찢어지는 그 소리는

민중의 함성이 들리는가 격노한 민중이 추켜든 불을 보는가 꺼지지 않으리라 이 불은 박근혜, 너를 깡그리 태울 때까지

《새누리당》의 마지막비명소리 너털너털해진 그 잔해는 력사의 버림받은 《새누리당》의 잔해

밧히우고 채우고 나딩구는 《새누리당》기발의 비참한 모양 민심을 배반해 민심에게 버림 당한 불의로 썩고 부패로 문드러진 시체 오, 《새누리당》은 죽었다

모른체 게거품 흘리며 미친 소리 질러댄다 《탄핵반대!》, 《박근혜님, 사랑해요!》

사대와 매국으로 병든 민족반역의 무리 온 남녘을 도란에 빠뜨린 이 추물들에겐 민심이 달아준 오명도 많다 《정계은퇴당》, 《주범이당》, 《내시환판당》...

사이비무당에게 넋을 빼앗긴 꼭두각시 변태적인 할망구의 사라구리에 붙어 기생하는 이놈들에게 어이 알랴 《너왕님》 비싸게 구해들인 《미아그라》도 《쥐여주시》는지?

《내시》들은 어디로 가나?

김 윤 식

민심이 추켜든 수백만의 초불앞에 쥐새끼처럼 숨었던 청와대악녀 어떻게나 《너왕》자리 잃지 않으면 된다

래년 4월까지 뻔치겠다는 추악한 흥심 드러냈는데

온 남녘이 침벌는 정치총장이건만 저승길이 코앞인 박근혜에게

코를 꿰인 《새누리당》패거리들 《박근혜사수》에 용약 떨쳐나섰다

옛적 왕궁의 거세한 내시들인데 어찌 이보다야 더 《총실》할수 있으랴 쓸개빠진 이 무리들은 창피도

오, 천하의 인간오물 박근혜와 함께 《새누리당》에 남녘은 이미 준엄한 사형관결 내리였거니 저기 공동묘지에서 박정희가 손저으며 부른다

《임금과 함께 순장되는 내시들의 더없는 영광이거니 근혜야 너 인츰 나한테 올 때 저애들 다 데리고 와야 해 한 녀석이라도 빠지면 나 섭섭 해!》

불은 꺼지지 않는다

김 영 일

격랑파도 같다네 청와대로 굽이치는 초불파도 사면으로 포위했네 청와대는 외로운 섬

사면초가란 말이 전해지고있다 지만 남녘엔 사면초불의 바다 수백만이 든 초불은

파헤쳐도 끝이 없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남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역도년의 최악의 검은 자취가 이역땅에 뻗어있어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아내고 있다.

최근 재중동포언론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 이비종교단체인 신천지교 회를 내세워 조선족동포 들을 수탈하고 반통일정 책을 침투시켜왔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그에 따르면 1984년에 생겨난 신천지교 회는 현 신천지교회 총회 장 리만희가 만들어낸 신 흥종교로서 그리스도교에 서 떨어져나와 그리스도 교로써서 이단취급을 받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침투하였 다고 한다.

지난 11월초부터 《조선 족들이 최순실의 도이칠 란드체류를 돕고있다.》 는 남조선언론들의 보도 가 나오기 시작하자 재중 동포들은 저저마다 나서 박근혜, 최순실과 깊은 련관관계를 맺고있는 신 천지교회에 흡수된 조선 족들이 최순실과 그의 딸 을 《보좌》하였다고 까 박히고있다.

특히 박근혜집권시기 신 천지교회 중공지부는 남 조선보수집권세력과의 인 맥을 쌓기 위한 중국내 주요공간으로까지 되었고 특히 신천지교회의 교주가 직접 중국에 자주 건너가 재중동포들에게 《통일이 곧 오니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통일은 대박 이다.》 등 박근혜와 일

맥상통한 발언을 종종 께 쳐대며 수탈놀음을 벌려 많은 재중동포기업가들이 신천지교회를 대상으로 《퇴물상납》 놀음을 벌려 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폭 로하고있다.

한편 남조선내부에서도 박근혜와 신천지교회사이 의 결탁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론 난이 일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 데 의하면 신천지교회는 최순실의 예비 최태민의 《령세교》와 오래전부 터 깊은 련계를 맺고있는 종교이며 박근혜는 무려 20년에 걸쳐 신천지교회 와 밀실관계를 맺고있다 고 한다.

2007년부터 《새누리 당》과 신천지교회와의 련루의혹이 터져나왔고 특히 2012년 2월 《한나 라당》의 당명을 《새 누리당》으로 변경시키 는 과정에서 《새누리》 의 《새》는 《신》을, 《누 리》는 《천지》를 뜻한 다면서 종교적색채가 짙 다는 반대여론이 당내부 에서까지 울려나왔다고 한다.

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 건이 터져나온 후 남조선 언론들을 통하여 신천지 교회의 한 신도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현 《새누리당》 대표 리 정현의 측근보좌관으로, 100명중 1명만이 채용된 다는 9급 정책비서로까 지 활동하였다는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론난을 더욱더 불러일으 키고있다.

결국 박근혜는 최태민의 《령세교》와 신천지교 회의 《주문》대로 《국 정》을 통락하였고 《새 누리당》도 그에 맹종맹 동하였다는것이 밝혀진것 이다. 모든 죄악과 재앙을 쏟아놓는 《관도라의 상 자》보다 더 큰 죄악과 재 앙을 마를줄 모르는 셈처 럼 마구 쏟아내는 박근혜 와 《새누리당》이다.

머리에 든것이 없고 있 다면 독선과 독주, 파썸과 대결, 친미친일사대밖에 모르는 암둔한 청와대안주 인과 그를 섬기는 《새누리 당》이 한갓 사이비종교 에 불과한 최태민의 《령 세교》와 신천지교회에 의 지해 정치를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는가.

그 무지몽매와 불통정 치속에서 아이들이 꽃망 울을 피여보기도 전에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

장되었고 남조선인민들 은 인간생지옥속에서 헤 매이지 않으면 안되었 다. 《2년안에 북이 망 한다.》는 허황한 종교 교리에 의지해 극단한 동족대결정책만을 강행 한 박근혜에 의해 북남 관계가 완전히 결판나고 이 땅에는 핵전쟁의 구 름만 짙어갔다.

인간아닌 정치추물, 그 를 섬기는 《새누리당》이 있는 한 남조선인민 들에게 차례질것은 불행 과 고통, 국제적인 수치 와 오명뿐이다.

화근은 빨리 들어낼수 록 좋은 법이다.

남조선에서 박근혜란 핵이 이루어지고 《새누리 당》 해체의 목소리가 드높은 지금이야말로 력 사의 오물, 민족의 수치 인 박근혜와 그 공범자인 《새누리당》을 제거해야 할 최적이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최근 남조선에서 격렬 하게 벌어지고있는 박근혜퇴진운동을 지켜보 는 미국의 눈길이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미국이 남조선정치와 사회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고 제 마음대로 조종해온 막후의 지배 자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에 있어서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박근혜항쟁은 결코 방관시할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보수, 반미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박근혜퇴진결과 민주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친미보수 세력의 재집권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수 있 다는 우려로 하여 미국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불안정한 심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국은 공식기관 대변인들과 주요언론들 을 내세워 《국민은 《정부》에 대해 우려를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느니, 《지체없이 다음

미국이 음직인다

기 《대통령》을 뽑는것이 남조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도 더 좋다.》느니 하며 미국이 남조선 각계층의 박근혜 퇴진투쟁을 《지지》하 는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한편 《세월》호참사때 의 박근혜의 7시간행적 을 밝혀내는데서 기본고 리로 되는 인물을 미국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보수, 반미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박근혜퇴진결과 민주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친미보수 세력의 재집권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수 있 다는 우려로 하여 미국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엔사무총 장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반기문이 남 조선에서의 《대통령》 자리를 탐내면서 설 레발을 치고있다.

11월 29일 일본언론들과 의 간담회에서 《올해말 임기가 끝나면 인차 귀국 하여 무엇을 할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일지들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대통령》선 거출마립장을 은근슬쩍 내비친 반기문은 남조선 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상태에 빠지자 권력야심가 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놓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 건으로 박근혜가 최대의 위기에 몰리자 지난 시기 박근혜와 짝자꿍이하 며 돌아치던 반기문이 자 기의 《선거립》에서 박근혜인물들을 내쫓고 측근들을 내세워 《버림받 고있는 여당에 반기문총 장은 가지 않을것》이라 는느니, 《병든 보수의 구 세주는 되지 않을것》이

권력을 노리는 《기름잡어》

라느니,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느니 하는 여론 을 내돌리며 역도년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있 는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기의 출신 지역인 충청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대 거출마립장을 은근슬쩍 내비친 반기문은 남조선 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상태에 빠지자 권력야심가 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놓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 건으로 박근혜가 최대의 위기에 몰리자 지난 시기 박근혜와 짝자꿍이하 며 돌아치던 반기문이 자 기의 《선거립》에서 박근혜인물들을 내쫓고 측근들을 내세워 《버림받 고있는 여당에 반기문총 장은 가지 않을것》이라 는느니, 《병든 보수의 구 세주는 되지 않을것》이

를 하고 《새누리당》후 보로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설 준비를 시작 하였다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자가 갑자기 태도 를 180° 바꾸어 박근혜와 《차별화》를 떠드는것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산송장이 된 역도와의 후 막관계를 덮어버리고 《대통령》야욕을 거어이 실현 하기 위해서이다. 민심이 불어준 《기름잡어》라는 별명이 신통히도 들어맞 는 반기문이다.

하지만 반기문은 부정 부패의 왕초, 동족대결 광인 박근혜와 배짱을 맞추며 돌아간 공범자라 는 오명을 절대로 지울 수 없다.

따지고보면 반기문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간상배이다. 그가 《5공》독재시기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

두번째 《너왕》에 대한 이야기

도처에서 일어나는 백성들의 투쟁으로 하여 신라의 진성여왕은 왕위에 오른지 11년만에 조카에게 권력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백성들의 생활은 안 좋게 되고 음탕하고 사 치한 생활을 추구한 너 왕에 대한 백성들의 원 한과 분노가 하늘에 닿 아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것이다.

신라력사상 살아서 왕위를 내려놓은 유일 한 왕이 바로 진성여왕 이다. 삼촌인 위홍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너 왕의 부패한 정사에 대 해 력사기록에는 《너 왕은 위홍이 죽은 뒤에 잘생긴 남자들을 끌어 들어 음란하게 놀고 그 들을 오직에 얹혀 국정 을 맡겼다. 총애받는자 들이 방자하게 굴어 퇴 벌이 불공정해져 기강 이 무너졌다.》고 써어

있다. 단지 지나간 오랜 력 사이이야기만이 아니다. 꺼질줄 모르는 분노 의 초불시위와 《박근혜야아》, 《국민의 명 령이다. 박근혜는 하야 하라.》는 민심에 떠밀 러 박근혜가 진성여왕 이 1 000여년전에 남 긴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

자기보다 40살이나 우인 최태민을 20대에 벌써 침실에 끌어들여 갖은 음탕한짓을 다하 고 그의 사위인 정윤희 를 자기의 남자로 만 든 박근혜와 진성여왕 은 크게 다를바 없지 않는가.

저들의 특권람용에 저촉되거나 비위에 거 슬리는 대상들을 가차 없이 제거한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에 대 한 이야기는 자기의 정치를 비난하는 글 을 썼다는 간신의 말 을 듣고 죄없는 사람 을 감옥에 처넣었던

재중에 공감하는듯 한 뉘 세를 풍기면서 돌아앉아서 는 박근혜추문사건을 목 인비호하고있는것은 미국 의 교활성과 표리부동자 세를 잘 엿보게 한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퇴 장에서의 《1분소등》에

맞추어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졌었다 는 언론보도가 나간데 대 해 전등을 끈 일이 없느니, 아마도 《착시현상》 일것이라느니 하며 박근혜를 비호하는듯 한 모습 도 연출하고있다.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 에서 세차게 벌어지는 대 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에 구도로 당황망조하여 그 투쟁의 불씨가 저들에게 튀는것을 막고 식민지통 치체제를 어떻게 하나 부 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박근혜퇴진투

쟁에 공감하는듯 한 뉘 세를 풍기면서 돌아앉아서 는 박근혜추문사건을 목 인비호하고있는것은 미국 의 교활성과 표리부동자 세를 잘 엿보게 한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퇴 장에서의 《1분소등》에

맞추어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졌었다 는 언론보도가 나간데 대 해 전등을 끈 일이 없느니, 아마도 《착시현상》 일것이라느니 하며 박근혜를 비호하는듯 한 모습 도 연출하고있다.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 에서 세차게 벌어지는 대 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에 구도로 당황망조하여 그 투쟁의 불씨가 저들에게 튀는것을 막고 식민지통 치체제를 어떻게 하나 부 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박근혜퇴진투

쟁에 공감하는듯 한 뉘 세를 풍기면서 돌아앉아서 는 박근혜추문사건을 목 인비호하고있는것은 미국 의 교활성과 표리부동자 세를 잘 엿보게 한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퇴 장에서의 《1분소등》에

맞추어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졌었다 는 언론보도가 나간데 대 해 전등을 끈 일이 없느니, 아마도 《착시현상》 일것이라느니 하며 박근혜를 비호하는듯 한 모습 도 연출하고있다.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 에서 세차게 벌어지는 대 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에 구도로 당황망조하여 그 투쟁의 불씨가 저들에게 튀는것을 막고 식민지통 치체제를 어떻게 하나 부 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박근혜퇴진투

쟁에 공감하는듯 한 뉘 세를 풍기면서 돌아앉아서 는 박근혜추문사건을 목 인비호하고있는것은 미국 의 교활성과 표리부동자 세를 잘 엿보게 한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퇴 장에서의 《1분소등》에

맞추어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졌었다 는 언론보도가 나간데 대 해 전등을 끈 일이 없느니, 아마도 《착시현상》 일것이라느니 하며 박근혜를 비호하는듯 한 모습 도 연출하고있다.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 에서 세차게 벌어지는 대 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에 구도로 당황망조하여 그 투쟁의 불씨가 저들에게 튀는것을 막고 식민지통 치체제를 어떻게 하나 부 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박근혜퇴진투

쟁에 공감하는듯 한 뉘 세를 풍기면서 돌아앉아서 는 박근혜추문사건을 목 인비호하고있는것은 미국 의 교활성과 표리부동자 세를 잘 엿보게 한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퇴 장에서의 《1분소등》에

맞추어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졌었다 는 언론보도가 나간데 대 해 전등을 끈 일이 없느니, 아마도 《착시현상》 일것이라느니 하며 박근혜를 비호하는듯 한 모습 도 연출하고있다.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 에서 세차게 벌어지는 대 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에 구도로 당황망조하여 그 투쟁의 불씨가 저들에게 튀는것을 막고 식민지통 치체제를 어떻게 하나 부 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박근혜퇴진투

쟁에 공감하는듯 한 뉘 세를 풍기면서 돌아앉아서 는 박근혜추문사건을 목 인비호하고있는것은 미국 의 교활성과 표리부동자 세를 잘 엿보게 한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퇴 장에서의 《1분소등》에

맞추어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의 불이 꺼졌었다 는 언론보도가 나간데 대 해 전등을 끈 일이 없느니, 아마도 《착시현상》 일것이라느니 하며 박근혜를 비호하는듯 한 모습 도 연출하고있다.

진성여왕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진성여왕시대에 백성 들이 왕의 음란하고 부패한 생활과 가혹한 세 금에 반기를 들고 여기 저기서 들고일어났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저들 의 향락을 위해 인민들 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진 혈세를 마구 탕진한 박근혜와 그 사환군들,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들을 징벌하려고 인민들은 초불과 해불 을 들고 청와대로 노도 쳐가고있다. 그러나 산 송장의 처지인 이 시 각에도 박근혜는 집권 언장파 《명예로운 퇴 진》을 꾀하며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진성여왕이 끝내 권력 의 자리를 내놓았듯이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 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 았다.

본사기자 강류성

강력한 남조선미국동맹의 특징이다.》느니 뭐니 하며 친미보수세력들에게 로 끌적으로 힘드 실어주고있는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타산은 어리석은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 이 박근혜와 최태민일가 의 부정협박관계와 무능 을 잘 알면서도 친미보 수 《정권》의 연장을 위 해 뒤에서 밀어주고 그가 집권한 후에는 꼭두각시 닭그네를 쉽게 조종하여 《싸드》배치 등 지배주 의적목적을 최대한 추구 해왔다는것을 잘 알고있 고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있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남조선전역에 펼쳐진 반박근혜투쟁의 초불바다 는 박근혜뿐아니라 꼭두 각시에게 《대통령》갑투 를 씌우고 저들의 리속을 차려온 미국에 대한 분노 의 폭발이라는것을.

김연희

의 침략적인 《싸드》배치와 일본 파의 성노예문제 《합의》를 적극 지지한 반기문과 같은 인간추물, 정치간상배 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 앉으면 남조선은 더욱더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되 고 사람들인 인간생지옥 에서 더욱더 고통받을것 은 자명하다. 유엔무대 에서 동족대결에만 미 쳐날뛰던 그가 북남관계 를 더욱더 결판내지 않 으리라는 담보도 없다. 지금 남조선민심이 반기 문을 가리켜 《제2의 박근혜》로 락인찍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것 은 또 하나의 재앙거리 라고 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넘보지 말고 상 전의 품에서 여생을 마 치라고 비난하는것은 우 연한것이 아니다.

반기문은 자기의 처지와 민심의 요구를 자각하 고 다음기 《대통령》에 대한 어리석은 미련을 버 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남조선 민주로총이 재벌들의 처벌을 요구

보도들에 의하면 민주 로총이 6일 《국회》앞에 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 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관련되어있는 재벌들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재벌들을 구속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 는 재벌우두머리들이 아 직 범죄자도, 혐의자도 아닌 증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언 명하였다.

단체는 박근혜와 최순실 의 뒤에 숨어 민심의 심판 을 피해보려는 재벌들의 더 러운 정체를 날달이 까발하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범인 재벌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이며 죄과를 줄이기 위해 공범은폐를 꾀하고있 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로동개약을 비롯 한 독점적리윤보장을 위해 청와대에 푼돈을 낸 재벌들이야말로 무제한한 권력이었고 막후세력이었 다는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단죄하였다.

재벌들을 단죄하고 개혁하는것은 새것을 만드 는 주추들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 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앞 으로 자리를 옮겨 항의투 쟁을 벌린 다음 박근혜와 재벌들을 상징하는 모형 물을 앞세우고 《새누리 당》사를 향해 시위행진 을 하였다.

본사기자